

##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토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이 논문은 칼빈주의가 과거 17세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칼빈주의의 영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발표자는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요람인 자유대학교에서 10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정에 밝고, 네덜란드어로 된 문헌을 섭렵하여 논문을 썼기 때문에 풍부한 현지의 문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네덜란드 공화국이 있었던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 등이 오늘날 유럽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특히 칼빈의 개혁주의의 요람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칼빈주의가 미친 영향은 기독교경제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 문헌을 연구할 수 있는 발표자의 연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하는 형태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5쪽에 “칼빈은 결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8쪽에 “칼빈이 당시에 자본주의가 유럽의 일반적인 확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등의 언급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다. 흔히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자본과 임노동의 분리 등을 의미하는 자본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1760년 이후의 사건인데, 칼빈은 이보다 200년 전인 1509 - 1564년 기간에 살았던 인물이다.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중상주의 시대로 자본주의와는 크게 다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은 중상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칼빈이 보았다고 하는 ‘자본주의’는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측면인 ‘상업의 확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칼빈은 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상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상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개신교와 유대교 뿐이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경제성장에 개혁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사적으로 볼 때 1492년,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에,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 대거 안트베르펜 등 네덜란드 공화국 지역으로 이주해서 스페인은 경제가 위축되고, 네덜란드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소금산업을 독점하던 유대인들이 대거 네덜란드로 들어옴에 따라 네덜란드의 경제가 크게 부흥한다. 인구의 30%가 종사했다는 청어에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데, 이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던 유대인들의 힘이 컸다. 그런데 안트베르펜이 스페인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다시 이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여 안트베르펜은 몰락하고, 암스테르담이 부흥한다. 그런데 필자는

유대인 대신 개혁주의 기독교에 의한 개신교 윤리를 강조한다. 이들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었는지, 아니면 상당수가 개혁주의 기독교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9-10쪽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칼빈주의적 노동윤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한국인이 부지런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이 칼빈주의 노동윤리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가 한국의 국민교육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시간이 길게 된 것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헝그리 정신, 잘 살아보세 이데올로기, 성공주의 등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칼빈주의와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청교도주의를 베버가 혼동했다는 주장도 있듯이 칼빈이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노동윤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